

다산포럼

신명 김덕수



김정남 언론인

올해로 김덕수가 광대가 된 지 60주년이 된다. 다섯 살 때인 1957년, 조치원에서 남사당의 난장축제가 열렸을 때 남사당 아저씨들이 김덕수를 안아 그들의 어깨 위에 새미로 세웠다. 김덕수는 어머니의 한 광복천을 목에 걸치고 어른의 어깨 위 맨 꼭대기에서 앉고 일어서기, 물구나무서기를 했다. 얼마 전 나는 김덕수로부터, 그가 광대로 출발했던 바로 그날의 사진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사당패는 조선 후기에 자연 발생한 민중놀이 집단으로 전국을 돌며 놀이마당을 펼쳤는데, 그 종목은 크게 여섯 가지로 풍물 농악과 접시를 돌리는 바나, 땅재주 부리는 살판, 툄타기하는 어름, 탈놀이 덧벚기, 꼭두각시 탈미 등이 있다. 이들 남사당 놀이패들은 농번기를 이용, 신명 나는 굿판을 벌여 주며 백성들의 흥을 돋워 주었다. 꼭두쇠를 중심으로 그들의 서열 조직은 엄격하고 일사불란했으며 추운 겨울이 되면 봄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김덕수의 아버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뒷날 박침지 놀이로 인간문화제가 된

사물놀이의 탄생

이후 김덕수는 선택된 남사당패의 일원이 되어 용산 미8군 장교클럽 등을 돌며 순회 공연에 나섰다. 공연을 마치면 출연료를 미국 달러로 받았다. 이때부터 김덕수는 우리의 신명이 대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장구패를 놓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광대로서 걸받지게 한 평생을 잘 놀다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매우 전형적인 초치이기는 했지만, 무형문화재 지정이 정부의 문화 정책이 되면서, 남사당과 같은 예인 집단의 해체가 가속화되었다. 보존 위주로 가는 정책하에서 더 이상의 유랑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1970년대에 들어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삶과 일터에 그대로 녹아 있던 전통놀이는 그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앞선 데 담긴 격으로 대학가 학생들의 반유신 투쟁에 동원되었던 팽과 리와 북·장구·징은 흑심한 탄압과 압수

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1978년에 건축가 김수근은 그가 설계한 공간사람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화 공연을 기획했다. 전통예술도 그 공연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때 민속학자 심우성의 제안으로 사물 악기로 앉아서 연주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다. 팽과리·징·장구·북의 사물놀이 가 탄생한 것이다. 사물놀이란 이름도 심우성이 작명한 것이다.

남사당 출신 김용배가 팽과리를 치고, 피리 전공자였던 이종대가 북을 맡았다. 그리고 해금 전공자이던 최태현이 징을 치고 김덕수가 장구를 맡아 오디리 풍물 가락을 연주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마당에서 하던 남사당놀이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사물놀이로 재탄생한 것이다. 남사당의 신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마당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공연장으로 돌아왔다. 이후 사물놀이는 여러 사계의 걸출한 예인들을 맞고 또 보내면서 계속될 수 있었다.

걸어 다니는 국보

이로부터 사물놀이는 급격하게 퍼져나간다. 여기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겨운 도움이 있었다. 물론 그 한가운데는 김덕수가 있었다. 사물놀이 이를 세계화하고 확장하는 데는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와 있던 수잔나 M. 샴

스타이 큰 힘이 되었고, 전통예술을 시대에 맞게 체계화시키는 데는 피아니스트 임동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4년 충청남도 부여에 사물놀이 한울림교육원이 세워지면서 공연이 반이던 교육 또한 국내외로 반이였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민족적인 것이요,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사물놀이가 따라갔으며, 1987년 6월 항쟁 때의 ‘바람맞이’, 2002년 월드컵의 신명, 최근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거기 사물놀이가 있었고 김덕수가 있었다.

10여 년 전 나는 김덕수에게 ‘신명’이라는 야호를 선물했다. 나는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김덕수의 광대 60년을 조명하고 기념하는 판을 열어 주고 싶었다. 그러나 힘이 모자라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란 이렇게나마 그의 광대 60주년을 축하해 주는 일이다. 사물놀이야말로 원조 한류요, 김덕수야말로 ‘걸어 다니는 국보’라고 말할 수 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살아 꿈틀거리게 하는 사물놀이의 그 신명이여, 세상 끝까지 하늘 끝까지 영원하라!

청춘 특·특



강 소혜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2학년

최근 다수의 생리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다. 여성 필수품에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 나온 것이다. 국내 시판중인 대부분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여성 소비자들은 “대체 어떤 제품을 믿고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호소하고 있다. 특히 특정 업체 제품이 사용한 여성들 사이에서 생리량과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진다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나오면서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생리대 발암물질 문제는 사용자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생리대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때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문제를 덮어두기에만 급

가습기·생리대 사태, 불안만 증폭시킨 식약처

급했을 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식약처의 공식입장은 “현행 기준에 적합하다”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전수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생리대 56개 사, 869개 품목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식약처는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시험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문제가 불거져서야 대처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방향을 찾아왔다”고 해명했다. 불분명한 자신들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해명이 아닌 변명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했다. 식약처의 해명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느냐”는 질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은 식약처의 우왕좌왕한 대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충분했다.

이 사태로 먼 생리대와 생리컵 등 이른바 ‘대안 생리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안 생리대는 일회용 생리대를 쓸 때보다 신체적 부담이 적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하루의 대

부분을 밖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보관과 착용상의 불편함으로 쉽게 선택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국내 생리대의 유해성 사태가 불거지면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국내 제품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며 생리대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없지만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 제품들은 과거부터 유해성 문제가 야기되어왔지만, 이를 모른 척 지나쳤으니 불신감이 커진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번 생리대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은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떠올릴 듯하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오히려 가족에게 고통을 준 사건은 되돌아보면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와 함께 기업을 감시해야 할 식약처 등 공공기관의 무책임과 안일함이 결합된 사태였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생리대 사태를 보면 식약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발표했을 뿐 피해 대책이나 대응 방법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생리대 사태에서도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대책이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리대가 당장 급하니까 나쁘다는 것을 알고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란처럼 내가 사고 안 사고를 선택할 수 없는 곤란한 상태”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중요하지만 생리대의 경우 여성들에게 생활 필수품인 만큼 당장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막대한 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공포감은 이미 커져 있다. 식약처는 문제 발생했을 경우 재빠르게 정확한 해법 로드맵을 제시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 더불어 이전 생리대 제품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제대로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숨겨왔던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약처 앞에 찍혀버린 ‘믿을 수 없는’이라는 낙인을 하루빨리 지울 수 있길 바란다. 식약처는 시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社說

‘헬기 사격’ 공수부대 지휘관도 입 열었다

광주일보는 어제 헬기 기총소사와 관련된 5·18 당시 한 공수부대 지휘관의 증언을 단독 보도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을 향해 헬기 기총소사를 했다는 증언이다. 그동안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전일빌딩 점령 작전에 나선 현장 지휘관의 증언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언의 주인공은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의 지휘관(당시 소령)이었던 A씨다. 그는 80년 5월27일 전일빌딩 헬기 사격 등의 내용을 제보했다. 그에 따르면 “전남도청 탈환 작전의 하나였던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은 27일 새벽 0시경 시작돼 3~4시경 완료됐다”는 것이다.

A씨의 증언은 그동안 군 작전일지 등과 상당부분 일치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특전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 ‘육군본부 상황일지’ 등에 따르면 계엄군은 1980년 5월27일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전남도청 일대 진압작전인 상무중정작전을 펼쳤다.

온정주의 심의가 학교 폭력 피해 키운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위원회의 가해자에 대한 심의가 폭력 근절보다는 사건의 조기 수습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학교 명예 실추나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를 고려, 처벌을 위한 치밀한 심의보다는 사건을 축소하는 온정적인 심의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각 초·중·고교별로 위원회가 소집돼 심의·의결하는데, 피해 학생은 가해자의 처벌이 약해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피해자 재심 청구는 지난 2014년 9건에서 2016년 28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9월까지 15건이 접수됐다.

광주 모 고교 A(3년)양은 동급생 B·C양으로부터 장기간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위원회에서 B·C양은 피해자 접

A씨는 시민군의 총기 탈취와 관련 해서도 보안사의 역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21일 군의 집단 발표 이전 이미 경찰서와 군이 총기와 실탄을 탈취하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의 근거는 총기 실탄 관련 매뉴얼인데 여기에는 총기와 실탄을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단서로 보이는 만큼 당시 경찰서 당직 근무자 등을 사들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일빌딩 지하공간을 희생자의 임시 보관소로 썼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주장도 처음으로 나왔다. 그는 “전일빌딩에 침투했던 부대원들에게 ‘전일빌딩 B동 지하에서 167구의 시신을 봤다’는 보고를 들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털어놨다. 당시 공개된 시신 안치장소였던 상무관과 달리 전일빌딩 지하 공간은 광주 시민조차 존재를 모르는 장소였다. 따라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규명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축협막 및 보복 폭력 행위 금지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3일)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언어폭력은 계속됐고 다시 교사에게 발각돼 위원회에 넘겨졌으나 교내 봉사·특별교육(3일)·보호자 교육(3시간) 정도의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A양 부모는 학교 측 처벌이 흉내만 낸 정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학교가 가해 학생들을 최대한 선처함으로써 이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온정주의로 나가서도 안 된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정주의가 만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50% 이상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無 等 鼓

전설적 헤지펀드 투자자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이 최근 재산의 80%인 180억 달러(약 20조 원)를 자신이 설립한 자선재단 ‘열린사회재단’(OSF)에 추가로 기부했다.

반면, 흥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지난 2015년 당시 시세 34억 원의 상가 건물 지분을 의원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 또 흥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어머니로부터 2억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흥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부의 대물림’에 대해 강도 높게 얘기해 140억 달러의 장학금을 내놓았다.

함영준 오투기 회장은 지난해 9월 고인 이훈 선대 회장 합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흥 후보자의 딸처럼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는 매년 호 명예회장으로부터

기부·상속·증여

오투기 주식 46만5543주(13.53%)와 계열사 조흥 주식 1만8080주(3.01%)를 상속받았다. 함 회장이 주식을 물려받으면서 내야 할 상속세는 1500억 원에 이른다. 대다수 국내 기업인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을 이용,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지만 고인이 된 한 전 회장은 어떤 편법도 동원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내도록 했다. 앞서 함 전 회장은 2015년 11월 밀알복지재단에 300억 원대의 오투기 주식 3만 주(0.87%)를 내놨다. 그는 별세 사흘 전에도 10만5000주(3.06%)를 오투기재단에 기부했다.

고 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중 10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가 7명이나 된다는 소식도 있다. 부유층이 이처럼 미리 증여하는 것은 건물·주식 가치가 오르기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두 번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다. 절세 수단이라 하면하겠지만 서민 가슴에 못질하는 행태다. 부유층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다. /박지성 서울취재본부장 jkpark@

기 고

동물복지 한걸음 더 다가가기



김정남 우치동물관리사무소장

동물원은 야생 동물의 생태와 서식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생명에 대한 감동을 주는 휴식공간이면서 멸종위기기에 처한 동물의 종 보존과 연구조사 기능까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의 동물원을 ‘노아의 방주’라고 한다. 그것은 동물원의 역할 중 하나인 ‘종 보존’ 기능을 강조한 또 다른 표현이다. 동물원이 없었다면 이미 멸종위기 동물은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화석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만큼 동물원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단순한 전시와 보호를 넘어 동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책임과의

무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최근부터는 동물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동물 복지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고려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동물원 동물(Captive wild animal)은 야생 동물(wild animal)과 달리 자연 서식 환경과 비슷한 동물 사육장에서 자유로운 번식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질 좋은 먹이를 충분히 제공한 가운데 평화로운 무리 속에서 수의학적 질병 관리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현재 동물복지의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동물원에서 동물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물 행동 풍부화(Animal behavioral enrichment)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영장류 연구의 선구자(Yerkes·미국)가 소개한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은 이후 Hediger(스위스)에 의해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동물 행동 풍부화는 동물원 동물이 야생에서 경험했던 물리적, 정신적인 자극과 유사한 물체, 냄새,소리 등에 변화를 주어 야생의 자연스런 행동 습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있고 활동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동물원의 제한된 공간에서는 천적이 없고 안정된 먹이 공급으로 동물이 무묘한 삶을 살 수 있어, 동물에게 야생 동물의 행동 양식을 보일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정형 행동(Stereotypic behavior) 등 이상 행동을 예방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동물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동물 행동 풍부화’의 종류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진다. 먼저 물리적 서식 환경(Physical habitat) 풍부화는 사육장의 물리적 환경을 종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풀장과 진흙 구덩이를 조성하고 밧줄과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동선을 제공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먹이(Food) 풍부화는 종류와 급여 방식에 변화를 주어 흠아주기, 통 속에 먹이 감추기, 용재로 먹이 주기, 굶여 위치 변경 등을 이용한다. 또한 인지(Cognitive) 풍부화는 놀이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정신적 자극을 주어 훈련 과정에 새로운 경험(먹이, 물건, 냄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회적(Social) 풍부화는 야생의 사회적 그룹을 고려 하여 서열을 통한 무리 전시, 교미 개체의 은신처 제공 등이 있다. 이 같이 ‘동물 행동 풍부화’는 동물원에서 동물복지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작은 물결이자 몸부림으로 동물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고 눈에 보일 정도로 생겼다는 행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동물 복지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치동물원도 최근부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의 동물 복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연생태와 비슷한 번식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치동물원은 동물 복지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지금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주요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